

영문판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표현된 '한국' (1931~2002년)

배 미 애*

'Korea' in World Regional Geography Textbooks in English Edition(1931~2002)

Mi-Ae Bac*

요약 : 본 연구는 서구에서 발행된(영문판) 대학교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에 관한 내용의 변화 과정과 문제점을 시계열적(1931~2002)으로 살펴보았다. 1930년대 이후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서 한국을 기술한 내용은 매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한국 관련 내용은 일제에 의한 조선 병합, 한국전쟁, 'NICs' 또는 'The Four Tigers'로 상징되는 남한의 경제성장,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서구 중심적' 사고에 의해 기술된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내용상의 오류 및 왜곡, 남·북한 통합기술의 문제, 기술내용의 종속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구 지리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편협하며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인식과 포괄적인 이해의 중요한 정보임에 분명하다면 서구 지리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변화된 한국의 위상이 교육을 통하여 제자리를 찾아야 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 왜곡, 한국, 남한, 북한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Korean-related description from 1931 to 2002 in 18 university-level 'World Regional Geography' textbooks, being published as English. During this period, the amounts of Korean-related contents in world regional geography textbooks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main Korean-related topics were generally 'Colonization by Japan', 'Korean War',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istorted information and erroneous description about Korea were mostly found in textbooks. The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of Korea was severely distorted and made a fallacy by 'accidental-centered' thought. It is suggested that foreign geographers who refer 'Korea' in World Regional Geography textbooks need to critically re-examine the ways in which Korean-related contents are in proper place.

Key Words : world regional geography, textbook, distortion, fallacy,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1. 서론

'교과서'란 사전상의 의미로 '학교의 각 교육 과정에 맞도록 편찬된 도서'를 의미한다. 교과서는 명시적인 교육과정 내용의 구체적 구현체로서 학교교육을 위한 주된 교재이며 교육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식정보원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달성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서 교수·학습의 주된 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학문영역의 내용과 성과가 세계화에 적응하려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교과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박철웅, 2001).

'세계지역지리학(World Regional Geography)'은 지리학개론¹⁾에 해당하는 중요한 교과로서 세계 대부분 대학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하는 학부학생들이 이수하여야 할 필수 교과목에 포함된다(Muller,

*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전임연구원(Full-time researcher, Institute of Busan Ge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mabae@pusan.ac.kr

1995). 대학교에서 세계지역지리학과목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세계의 각 대륙이나 국가의 다양한 특성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지역구조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지역성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시·공간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에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세계문화의 확산에 따른 세계 각 지역의 적응 및 대응 방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도 이와 같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목이 설정해 놓은 교육목표에 부응하도록 저술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지역지리학을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의 비중은 계통지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의 대부분은 거의 영어로 저술되었거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서구 학자들이 저술한 출판물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사나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를 저술하는 서구 지리학자들은 크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타 국가'를 기술하는 학자들과 서구 중심의 역사·지리적 전통에 갇혀 '서구의 관점에서' 타 국가를 기술하는 학자들로 구분된다. 후자의 '서구 중심적' 기술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편향된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관련 내용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화의 경향과 더불어 최근 지역에 대해 새롭게 부활되는 관심은 지역지리학에 대한 재조명으로 연결된다. 특히 세계화 및 정보화의 과정 속에서 지역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역할과 지역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지리학 또는 지역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지역지리학도 이러한 동향과 맥락을 같이 하여 세계 각 대륙 및 국가의 고유성과 변화된 지역성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은 아직 이와 같은 새로운 지역지리학적 기술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구 중심적'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술되어 있다.

세계화의 빠른 진행과 더불어 외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지리학도 및 지리학자들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관련내용의 적절성이나 정확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시도이며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발행된(영문판) 대학교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 관련 내용을 추출하고 검토하여 서구 지리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다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는 정량적인 분석단계로서 1931년 이후 2002년까지 세계지역지리학에 기술된 한국관련 내용의 비중과 증가추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분석 단계로서 '세계지역지리학'에 일반적으로 다루어진 한국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주제의 시계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 번째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 단계로서 한국 관련 내용을 토대로 왜곡되어 있거나 오류를 범한 부분을 추출하여 내용을 검토하여 서구 지리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31년부터 2002년까지 총 22권의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세계적인 교과서 출판사인 MacMillan, John Wiley & Sons, Prentice-Hall 등을 중심으로 출판된 이들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서구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로서 이중 20권은 미국에서, 2권은 영국에서 각각 출판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한국' 관련 내용의 일반적 특성

1) 한국 관련 내용의 양적 구성

(1) 한국 관련 내용의 양적 증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관련 내용은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만족할만한 혹은 충분한 기술이

표 1. 연구에 사용된 세계지리지학 교과서

발행연도	저자	책 제목	출판사	비고
1931	De Forest Stull · Roy W. Hatch	Our World To-Day : A Textbook in the New Geography	Allyn and Bacon	Boston
1940	Marion I. Newbigin	A New Regional Geography of the World	Brace and Company	Harcourt
1943	L. Dudley Stamp	The World: A General Geography	Longmans Green and Co.	London
1944	E. L. Thurston · E. h. Faigle	World Geography	Iquois Publishing Company, Inc.	New York
1945	John Hodgdon Bradley	World Geography	Ginn and Company	Boston
1949	Leonard O. Packard · Bruce Overton Ben D. Wood	Geography of the World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55	Jesse H. Wheeler, Jr. Trenton J. Kostbade · Richard S. Thoman	Regional Geography of the World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 York
1964	Preston, E. James	One World Divided: A Geographer Looks at the Modern World	Blaistell Publishing Company	Waltham
1971	Harm J. De Blij	Geography: Regions and Concept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74	Preston, E. James(2ed)	One World Divided: A Geographer Looks at the Modern World	Xerox	Lexington
1977	Paul Ward English	World Regional Geography: A Question of Place	Haper's College Press	New York
1978	Don R. Hoy(ed)	Geography and Development: A World Regional Approach	Macmillan	New York
1981	Harm J. De Blij, · Peter O. Muller(2ed)	Geography Regions and Concept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82	Richard H. Jackson · Lloyd E. Hudman	World Regional Geography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85	Richard H. Jackson · Lloyd E. Hudman(2ed)	World Regional Geography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89	James S. Fisher(ed)	Geography and Development: A World Regional Approach	C. E. Merrill Publication Co.	Columbus
1990	Charles A. Stansfield et al	Global Perspective: A World Regional Geography	Merrill Publication Co.	Columbus
1990	Jesse H. Wheeler, Jr · Trenton J. Kostbade	World Regional Geography	Saunders College Pub.	Philadelphia
1994	Vincent Bunce · David Lambert	World Geography: Case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5	David L. Clawson	World Regional Geography: A Development Approach	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1995	Harm J. De Blij(ed)	Geography Book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2002	S. Marston · P. Knox · D. M. Liverman	World Regions in Global Context	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어느 정도의 양적 수치를 가져야만 하는가는 매우 상대적인 문제지만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이 기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상당한 증가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다. 193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관련 내용은 약 10배의 상당한 증가를 하였다. 한국관련 내용의 총 단어수와 문장 수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을 전후하여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전쟁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50년 중반이후 각 교과서마다 약 1,500단어에 해당하는 한국관련 기술 내용이 거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80년 이후 나타난 소폭의 증가는 남한의 급속한 경제발전 등에 대한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한국관련 기술내용에 대한 단순한 빈도수의 증가로서 한국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설명하기는 힘들며 더욱이 한국의 지리적인 환경을 올바르게 전달하였다고는 판단하기 힘들다. 남한의 경우 1980년 이후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매우 한정적이며 이후 기술빈도에 있어서도 단지 미미한 증가를 나타냈을 뿐이다.

1930년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은 세계의 다른 국가나 아시아의 자연·인문 현상을 설명하는데 일부분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기술한 내용만으로 하나의 문단이 구성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이후 남한의 경제성장 등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한국은 하

나의 독립된 문단으로 기술되거나 '한국(Korea)' 또는 '두 한국(the Two Koreas)' 등의 부제로서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2) 국명사용의 변화추이

국가의 명칭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기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표현된 우리나라의 국명은 혼돈과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한국(Korea)',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 등이 번갈아가면서 표기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적 지형특성을 고려한 '한반도(Korean Peninsular)'와 같은 표현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가명칭이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용어임에는 분명하나 내용의 기술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적절한 국가명칭을 사용하였는지는 의문이다. 그림 2는 국명 사용의 변화과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55년 이전, 즉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분단되기 전에는 세계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남·북한을 하나의 단일 국가로서 간주하였다. 1930년 이후 '세계지역지리학'에서 우리나라는 '한국(Korea)'으로 불려졌으며 이는 195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Korea)'과 '조선(Chosen)'이 혼합되어 불려지기도 하였으나 '한국'과 '조선' 간의 우위관계는 불분명하였다. Newbigin(1940)과 Thurston·Faigle(1944)는 '조선'을 우위에, Stamp(1943)과 Packard·Overton·Wood(1949)는 '한국'을 우위에 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서술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남·북한의 독립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년에도 남한과 북한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표현되었으며 이미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이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 지리학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나 관심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국명 표현은 더욱 다양성을 띠게 된다. 이전에 쓰였던 '한국(Korea)'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그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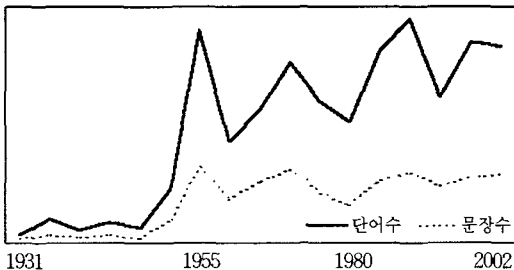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관련 내용의 단어수·문장수 증감

중은 줄어들고 '남한(South Korea)' 과 '북한(North Korea)'의 표현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남한이 조금 더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남·북한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남·북한의 분리된 표현이 '한국'으로 불려지는 통합된 표현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국명의 사용에 있어서도 북한에 비해 남한에 비중을 더 두게 하였다. 1990년을 전후하여 남·북한의 분리된 표현이 통합된 표현을 앞질렀으며 특히 남한에 비해 '북한'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핵문제와 열악한 경제 상황 등 최근 북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표현된 우리나라의 국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표현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닌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역사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분단되는 특수한 경험 이외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경제성장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변화를 거듭한 역사는 많은 서구 지리학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국명을 지칭하는 데 혼란을 겪게 만들었으며 이는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를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 한국 관련 내용

193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관련 내용은 일본과의 식민역사, 한국전쟁,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그리고 최근 부각되는 북한에 대한 관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술의 관점이 초기에는 역사·정치적인 면에서, 1970년대 이후 경제적인 면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내용 중 역사적인 부분은 남·북한 공동으로 다루어졌으나

경제부분은 주로 남한에 국한되어 기술되었다. 주요 관심사가 한국의 상황과 시기적으로 반드시 일치되어 적절하게 기술된 것은 아니나 각 연대별로 비중이 높았던 기술내용을 중심으로 시계열적인 패턴(표 2)은 발견할 수 있다. '일제의 조선병합'(1930~1950), '한국전쟁'(1950~1980), 'NICs' 및 '아시아의 네 마리 용(The Four Tigers)'(1980~1995), '북한에 대한 관심'(1995~현재) 등으로 내용이 요약된다.

(1) 일제에 의한 조선 병합(1930~1950년)

1930년 이후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관련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의 조선 병합에 관한 내용이다. 일제조선병합에 대한 서구 지리학자들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일부 중립적 시각을 제외하고는 식민 주체인 일본에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일관된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일제조선병합의 내용은 '일본'을 기술한 단락이나 항목에 포함되어 아주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병합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발판으로 삼은 주변 여러 국가들 중 조선은 한 국가로 인식되었다. 거의 모든

표 2. 주요 한국 관련 내용의 변화

1930	1950	1980	1995	현재
일제의 조선 병합				
한국전쟁				
남한의 경제성장 (NICs · The Four Tigers)				
북한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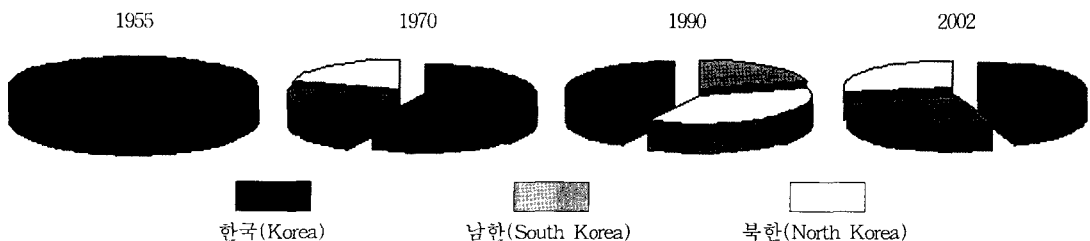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명칭 비중의 변화

교과서에 'Japan annexed Korea' 라는 단순하면서도 유사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다음의 예들은 일제조선통일합에 대한 보편적인 표현들이다.

- 'Korea was annexed by Japan in 1910; its position in relation to Honshu should be noted'(Newbiggin, 1940, 200)
- '1910 it was annexed to the Japanese Empire in order that it might not be seized by Russia.'(Stamp, 1943, 487)
- 'In 1910, all pretense cast aside, Japan annexed Korea, renaming it Chosen.'(James, 1974, 292)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하여 우위를 확보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였다는 보다 구체적인 병합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 중 가장 초기의 저서인 Stull · Hatch(1931)에서는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의 과정을 통하여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세계지역지리학'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마치 한국의 독립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The Chino-Japanese War, 1894-95, was brought on because of the rivalr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o which should control Korea ... Russian began to strengthen her position in Manchuria ... and finally threatened to gain control of Korea ... Korea was to be granted autonomy, but was later annexed in 1910.'(Stull · Hatch, 1931, 424)
- 'With Russian influence and pressure checkmated, Korea became a Japanese protectorate, though it was not formally annexed to the Japanese Empire until 1910.'(Wheeler, Jr. · Kostbade · Thoman, 1955, 492)
- 'In 1905, after Russo-Japanese War, Korea became Japanese Empire.'(Fisher, 1989, 626)
- '... in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and ousting Russia from Korea to southern Manchuria in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1905. From 1905 until 1945 Korea was firmly under Japanese control, being formally annexed to the Japanese Empire in 1910 ...'(Wheeler, Jr. · Kostbade, 1990, 442)

그리고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원인을 일부 저

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자국의 부족한 광물자원과 곡물자원을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진 조선에서 획득하기 위하여 병합을 시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In 1910 Japan took over the adjoining peninsular of Korea, with its agricultural and mineral resources and its valuable ice-free harbors.'(Bradley, 1945, 399)
- 'Lack of sufficient coal and iron ore was one of Japan's real reason for embarking on its career of Asiatic conquest. This purpose was evident in the conquest of Korea(Chosen) in 1910.'(Packard · Overton · Wood, 1949, 438)
- 'From 1905 to the end of World War II, the peninsular became an integral part of Japanese Empire, functioning as a sources of minerals for resource-poor Japan as well as a market for Japanese industries.'(Clawson, 1995, 347)

(2) 한국전쟁(1950~1980년)

남한이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이전까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다루어진 '한국'에 대한 기술내용 중 한국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북한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세계 자유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서방 민주국가들은 동의하였다. 따라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여 이 전쟁에 공헌하였다. 당시 한국전쟁은 중요한 세계적 이슈로서 등장하였고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전쟁은 '세계지역지리학'에서 한국부분을 기술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한국전쟁은 한국에 대한 세계지리학자들의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이는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를 통해 반영되어 한국에 대한 기술부분의 양적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은 한국을 이해하는 주요 척도로서 삼았으며 전쟁 직후 일시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중 최근까지 이어져오는 주요 주제가 되었다.

Wheeler, Jr. · Kostbade · Thoman(1955)이 저술한 '세계지역지리학'에서 한국전쟁은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한 문단으로 이루어진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은 북한이 1950년 한국을 침략한 것을 시작으로 UN의 원조와 중국의 개입 등을 통하여 1953년 휴전할 때까지를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James(1964, 1974)에서는 한국전쟁을 '한국의 분단(The Partition of Korea)'이라는 부제 하에 이차대전이후부터 독립, 신탁통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거쳐 북한의 침략과 휴전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Wheeler, Jr. · Kostbade (1990)에서도 1950년 북한이 침공하여 미국을 위시하여 유엔의 도움으로 그 해 만주부근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3년 끝내 38선 부근에서 휴전 협정하였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고 있다.

- *'In 1950 North Korea attacked South Korea in force, and United Nations units, mainly American, entered the peninsula to repel the aggression ... while truce talks were under way from July 1951 until an armistice was arranged in the summer of 1953.'* (Wheeler, Jr. · Kostbade · Thoman, 1955; Wheeler, Jr. · Kostbade, 1990, 442)
- *'However, in 1950, the North Koreans attempted to invade the southern section of the country. United Nations forces came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in its critical position, but it was not until 1953 that the war was brought to an end.'* (James, 1964, 354 · 1974, 292)

한국 전쟁을 다룬 내용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기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초기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국전쟁에 대한 저자 나름의 정치·경제학적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De Blij(1971 · 1995)와 Hoy(1978)의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De Blij(1971)는 한국전쟁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였으나 약 20여 년 후의 저서(1995)에서는 한국전쟁의 과정을 강조하는 정석적 기술보다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위상 변화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Hoy(1978)은 일제에 의해 영향 받았던 경제구조가 한국전쟁으

로 인하여 남·북한의 경제구조로 바뀌고 이후 경제발전이 각각 다르게 전개된 점을 강조하였다.

- *'In 1950 North Korea sought to reunite the country by force and invaded the South ... Eventually a cease-fire was arranged in mid-1953, but not before the people and land of Korea had been ravaged in a way that was unprecedented even in its violent past.'* (De Blij, 1971, 512)
- *'A half million Chinese died on behalf of North Korea's campaign to reunite the peninsula by force(1950-1953), China provides North Korea with crucial resources and is its leading trade partner.'* (De Blij, 1995, 249-250)
- *'... the Korean War which hardened this division, new economic patterns have emerged, Each half has attempted to round out its economic structure in order to achieve greater self-sufficiency ...'* (Hoy, 1978, 653)

(3) NICs · The Four Tigers(1980~1995)

남한의 경제 도약은 1970년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 IMF 사태 이전까지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남한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한국전쟁만큼이나 한국을 기술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게 하였다. 많은 지리학자들이 지리학 관련 여러 교과서를 통하여 남한의 경제발전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기술하였다.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도 남한의 경제발전을 한국을 기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전쟁 이후 단기간에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아주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특히 Wheeler, Jr. · Kostbade(1990)은 남한의 생산성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적인 측면이 이미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할만한 상태에 있다고 기술하면서 남한의 경제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 *'South Korea was growing rapidly in output and income during the mid-1980s, and competition from its products was causing concern to competing American and Japanese industries.'* (Wheeler, Jr · Kostbade, 1990, 445-446)

그러나 일부 지리학자들은 남한의 경제성장 뒷면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간과하지 않았는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IMF위기(Clawson, 1995) 등이다. Charles et all(1990)은 최근 후발 경제개발국과의 경쟁에서 남한이 점차 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도 기술하였다. 조금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Fisher(1989)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비교하여 정치적인 발전을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 ‘... , the intimate company government relationships have promoted the economic fortunes of a few select family-owned megacorporations called chaebol. In 1998, the top seven chaebol, which include the global firms of Daewoo, Hyundai, and Samsung, accounted for half of all South Korean exports.’(Clawson, 1995, 349)
- ‘When the crisis hit in 1997, the South Korean currency ... ,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scued the national economy with the largest loan ever made to a single country.’(Clawson, 1995, 349)
- ‘The South Korea economy has recently shown some signs of the strain of being the faster expanding in the world. Inflation and rising wage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some markets for cheap consumer products to Taiwan and Hong Kong.’(Charles et al., 1990, 308)
- ‘Unfortunately, political development has not kept pace with economic improvement and represents a serious challeng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Fisher, 1989, 629)

남한의 경제성장단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난다. 경제발달의 초기에는 NICs(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²⁾에 포함된 한국가로서 인식되어 브리질, 멕시코 등 세계 각 대륙의 신흥공업국가들과 함께 기술되었다. 다음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남한을 NICs로서 표현한 내용들이다.

- ‘These NICs include Singapore, Hong Kong, Brazil, Mexico, Taiwan, and South Korea’(Jackson · Hudman, 1982, 82)
- ‘The NICs are in a transition between the least industrialized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e mature, industrialized economies of the developed world’ Examples include Singapore, Hong Kong, Brazil, Mexico, Taiwan, South Korea, Argentina, and Chile’ (Jackson · Hudman, 1985, 9)

- ‘Two types of countries that were once in the poor group ... The second type is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NICs) represented by Brazil and South Korea’ (Fisher, 1989, 80)
- ‘East Asia’s NICs are ideally placed for trade: Hong Kong and Singapore ... , and ports quickly grew up in Taiwan and South Korea to export the growing volume of manufactured goods.’(Bunce · Lambert, 1994, 152)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함께 남한이 다른 대륙의 NICs 보다 상대적으로 급성장하여 이들 네 나라를 차별화 하여 ‘아시아의 네 마리 용(The Four Tigers)’으로 표현하였다. 즉 세계 선진 경제대국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나라들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국가들로서 간주하였다. 특히 남한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주도국가로서 표현되었다.

- ‘Over past 20 years, however, Japan has been challenged. Although it remains the undisputed leader, it now faces growing competition from the so-called Four Tigers of East and South-East Asia: South Korea,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Among these, populous and productive South Korea.’(De Blij, 1995, 245)
- ‘East Asia has three of the so-called Asian Tigers, newly industrialized territories that have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that has lifted them from the periphery of the world-system to the semiperiphery. These are Hong Kong, South Korea, and Taiwan(the fourth Asian Tiger is Singapore, in Southeast Asia.’(Marston · Knox · Livermann, 2002, 442)

(4) 북한에 대한 관심(1995~현재)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기술된 북한관련 내용은 매우 단편적이며 한정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에 관한 내용이 단독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북한에 대한 기술은 그 빈도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전쟁 이전의 북한관련 내용은 ‘한국(Korea)’ 부분에 통합되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이 주 내용을 이루었으며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이 기술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전쟁’과 연관된 기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남한과 비슷한 비중으로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따

라서 최근까지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핵무기를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가 세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도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While the debate over the U.S. relationship with China focused on the human rights issue, another matter influenced it: the apparent drive by North Korea to join the nuclear club. Undoubtedly, the U.S. administration hoped that China would join in an effort to dissuade North Korea from pursuing its nuclear aims, even to the point of joining a United Nations sanctions policy.'* (De Blij, 1995, 249)

James(1964)는 남한에 비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수력발전 등을 기술하였으며 남한에 대해서는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다. James(1974)에는 남한의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성장 등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기술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광물자원의 풍부함 등 1차 산업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표현하고 있다. Stansfield(1990)은 북한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을 파악하였고, Clawson(1995)도 북한 경제를 마르크스 및 내향적 경제(inward-looking economies)로 간주하면서 경제구조의 실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North Korea remains a hermit-like communist dictatorship with an economy that is practically lifeless.'* (Clawson, 1995, 346)

· *'North Korea is the unenviable position of being the neighbor of both the Chinese and the Russian at a time of poor relations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t has moved deftly, maintaining trade and a amicable relationship with both.'* (Stansfield, 1990, 308)

'한국(Korea)' 또는 '두 한국(the Two Koreas)'이란 부제에서도 남한과 함께 분리되지 않고 기술되었던 북한은 2000년에 들어와서 비로소 남한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다루어졌다. Marston·Knox·Livermann(2001)은 북한을 '장소의 의미' 부분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장소

의 의미(Sense of Place)' 항목은 세계의 아주 특별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성을 이해하는 부분으로서 북한을 한 부분으로 특별히 다루었다. 이는 1930년 이후 저술된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서 북한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룬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경제상황 또한 매우 열악한 점이 독특한 지역성에 관심을 가지는 지리학자들로 하여금 지면을 할애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비롯하여 김정일 체제로 이어지는 과정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이로 인한 기아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적 공조 등을 통한 통일에의 노력을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용어로 마무리하였다.

· *'Reunification seems a long way off, but it would make sense from a regional geographic perspective.'* (Marston·Knox·Livermann, 2002, 441)

남한과 분리하여 북한의 부정적인 경제상황과 긍정적인 남·북한 관계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이와 같은 경향은 여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계속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남한과 북한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실체로서 이전의 남·북한을 통합하여 기술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각 국가의 지역적 고유성에 대한 기술은 세계지역지리학교과서가 반드시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며 남한과 북한의 내용 기술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옳을 것이다.

3. 한국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1) 내용의 오류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기술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련 내용에서 상당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 유형화된 아래의 오류내용은 주로 역사적인 사실이며 특히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 인식된 한국의 국가적 혹은 문화적 정체성이다. 오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제의 조선병합 과정 오류

서구 제국주의국가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속에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며 1894년 청과의 전면전에 돌입하여 승리하게 되고 1895년 청일조약으로 청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배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일본은 1904년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청과 러시아세력을 배제하게 된 일본은 1910년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고 국명을 조선으로 바꾸고, 조선총독부를 두어 친황 직속의 군인 총독을 임명하여 군대의 힘으로 무단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의 식민지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병합역사 속에는 사실상 청일·러일 간에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사건들의 매우 복잡한 전개과정을 거쳐 조선병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 학자들로 하여금 병합의 과정을 기술하는 데 혼란을 겪게 만들어 내용상의 오류로서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으로 조선을 병합한 것이 아니라 청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되었다. 즉 청일전쟁이 곧 조선을 병합하게 한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기술된 것(Stamp, 1943; Thurston·Faigle, 1944)을 찾아볼 수 있다.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이 완전히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조인된 1910년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일본이 느꼈다고 기술한 교과서(Packard·Overton·Wood, 1949)도 있다.

- *'After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in 1895, it became independent.'*(Stamp, 1943, 487)
- *'The Soviet Union entered the war in Asia only shortly before the surrender of Japan, which had occupied Korea*

since 1895.'(Stansfield, 1990, 305)

- *'Once more Japan was victorious, and as a result of the war she soon annexed Korea, changing the name of her new possession to Chosen ...'*(Thurston·Faigle, 1944, 266)
- *'In 1910 the Japanese, fearing the country might fall into the hands of Russians, made Korea a part of the Japanese Empire. They said that Korea was a dagger pointed at the heart of the Japan. They changed their name of the country to Chosen ...'*(Packard·Overton·Wood, 1949, 437)

(2) 한국의 국가적·문화적 정체성 왜곡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에 받았지만 오천 년 동안 독립 국가를 이루어 왔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지역지리학교과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아 온 것처럼 표현된 문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In 1910 Japan annexed Korea which for hundreds of years had been under Chinese control but which for some years before the annexation had enjoyed a measure of independence.'*(Packard·Overton·Wood, 1949, 435)
- *'The "Hermit Kingdom," Korea, was for centuries to a greater or less degree under the control of China ...'*(Packard·Overton·Wood, 1949, 437).
- *'In many ways Korea might have become a part of China. Through much of its history, it has existed as a loose political appendage of the Middle Kingdom and owes China a profound cultural debt ...'*(Hoy, 1978, 651; Fisher, 1989, 626)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다.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독립성을 과소평가 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문화와 중국문화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는 삼국시대

이후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일본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지역지리학'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기술하면서 중국과 일본에 매우 우호적인 성향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가 중국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국문화가 중국문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책에서는 한국문화는 심지어 일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아 민족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 양국 문화를 혼합해 놓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³⁾. 그리고 문화적인 면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중국·일본과 혼합된 국가로서 표현함으로써 오천년 단일민족의 역사로서 대표되는 한국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 *'The Korean Peninsula serves as a land bridge between China and Japan. People have been coming and going over this bridge for thousands of years. Those who stayed and settled became Koreans. Racially and culturally the Koreans are mixture, in which Chinese and Japanese traits are the most common. In the north the Chinese element in the mixture is the stronger; in the South the Japanese element is predominant.'* (James, 1964, 354; 1974, 292)

(3) 일제와 조선경제의 잘못된 해석

많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식민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입장에서 피식민국의 입장을 기술함으로써 마치 식민이 경제적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피식민국에게 큰 혜택을 준 것으로 기술하여 식민 자체를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의 한 부분이다. 피식민국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는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⁴⁾을 지리학자들이 간과하였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특히 일제시대 철도의 발달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하였으며 지역 간 물자유동을 촉진시켰음을 강조하였으나(Charles at al, 1990), 이는 철도의 발전에 따라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에 더욱 강건히 편입되고 증속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⁵⁾

- *'... its impact was far-reaching, for Japanese investment and development projects initiated the transformation of Korea's traditional economy and society. Without the Japanese contribution of roads, railroads, ports, mines, factories, and irrigation systems, today's growth of progress would probably not have been possible.'* (Fisher, 1989, 626-627)
- *'... the Japanese and particularly the Chinese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 *The Japanese influence also included learned technological and business skills that were intended to prepare the South for later entry into the global economy.'* (Clawson, 1995, 347)
- *'During their period of control the Japanese developed transportation, agriculture and industry, ... The Korean people received few benefits from these developments, however, since the increased production was put mainly to Japanese uses.'* (Wheeler, Jr · Kostbade, 1990, 442-443)

2) 남·북한 통합표현의 문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국가적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되는 정치제도, 다양성과 획일성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사회구조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1953년 한국전쟁이 종식된 이후 이와 같은 차별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남한은 장기간의 독재를 벗어나 민주사회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미명 하에 개인주의로 그 정치문화를 지탱하고 있다. 남·북한 국가적 실체에 대한 이와 같은 명확성은 한국 관련 내용을 서술하는 지리학자들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즉 남한과 북한이라는 국가적 실체가 분리되어 교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각 국가의 지역적 고유성이 제대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판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한국과 관련하여 이러한 점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1980년 이후에나 남·북한을 분리하여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분리가 시도되었으나 제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관련내용의 부제는 대부분 1980년 이전에는 '한국

(Korea)' 또는 '조선(Chosen)'으로 나타냈으며 그 이후에도 '남한(South Korea)'과 '북한(North Korea)'을 분리하여 표현하지 않고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으로 남·북한을 합쳐 여전히 하나의 국가단위로 다루고 있다.

'한반도(Korean Peninsular)'라는 특수한 지형적 요소는 서구 지리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남·북한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혀 다른 정치·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진 두 나라는 물리적인 속성에 의하여 하나의 지역 단위로서 인식되어 진다. 이런 경우 남·북한 각각의 정치사회적인 특성보다는 지형적 요소가 갖는 이미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반도가 갖는 이미지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작은 반도국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과도 관계를 가진다. 즉 아시아 대륙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완충국 혹은 교량국으로 보는 경향을 반영한다(김희목, 1991).

- 'Korea, or Chosen is a large mountainous peninsula.' (Stamp, 1943, 487)
- 'The Korean peninsular serves as a land bridge between China and Japan. People have been coming or going over this bridge for thousands of years ...'(James, 1964, 354;

1974, 292)

- 'The peninsular of Korea reaches from the East Asian mainland toward Japan and, not surprisingly, has experienced a turbulent history ...'(De Blij · Muller, 1981, 499)
- 'Japan's closet approach to the Asian mainland is in the extreme west, where the peninsular of Korea lies only about 110 miles(177Km) away ...'(Wheeler, Jr. · Kostbade, 1990, 442)

3) 중국·일본과 연관된 기술(독립된 기술의 부재)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서 한국관련 내용이 독립적인 단원으로 체계적으로 서술된 예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1931년 이후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1950년 이전에는 한국은 일본의 지리적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내용으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 교과서도 대부분 일본과 중국을 주요 장으로서 따로 구분하여 다루어 주었으며 한국·남한·북한은 이들 두 나라의 역사·문화 등을 설명하는 데 부분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표 3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기존의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들은 아시아·중

표 3. 한국관련 내용의 비독립성

	1931	1940	1943	1944	1945	1949	1955	1964	1971	1974	1978	1981	1982	1985	1989	1990	1995	2002
아시아																		
아시아				*K										*				
극동아시아		*J				*J												
문순아시아			*J								*C							
동아시아								*K		*K								*
동남아시아																		
중국																		
막강한 힘의 희생자들						*C												
현대화하는 중국												*K						
공산주의 체제와																		
중국의 변화																		
중국과 인접 국가들									*K				*K		*		*C	
일본																		
섬왕국 일본						*J												
한국과 일본							*J · K										*K	
기타				**J								**	***	****				

* 한국이 기술된 장(chapter) J: 일본서술 C: 중국서술 K: 한국서술

국·일본·한국과 일본 등을 독립된 장으로 설정하여 이 속에 한국을 포함시켜 기술하였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극동아시아·몬순아시아·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포함시켜 기술한 경우에도 일본과 중국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지리적 환경을 기술하였다. 한국에 비해 중국이나 일본의 서술 내용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의 한 곳으로서 우리나라 보다 더 오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해 왔고 무역과 문화교류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일찍부터 세계무대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지리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메이지 유신 이후 막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보다 충분한 기술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김희복, 1991).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중국과 비교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관련 내용의 기술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일본·중국과 연관되어 기술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Newbiggin(1940)은 '일본의 영토'를 다룬 내용에서 한국(조선)을 일본이 병합함으로써 일본의 영토가 늘어난 점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통하여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점을 기술하면서 한국을 아주 가볍게 다루었으며 사실상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인한 외국문물의 수입이 일본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다. Stamp(1943)에서 한국의 자원이나 주요 도시의 위치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부족한 광물자원이 조선에 있다거나 '부산(Fusan)'의 위치가 일본 시모노세키로부터 120마일 떨어져 있다는 내용 등이다. Thurston·Faigle(1944)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식민화 하는 과정을 다루면서 일부분으로 한국을 다루고 있다. 청일전쟁이 한국을 지배하려는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선권을 점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병합하게 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이주하게 된 원인이나 수입품으로서 한국의 풍부한 광물자원이나 곡물을 잠시 언급하였다.

Packard·Overton·Wood(1949)는 한국을 '중국: 강한 힘의 희생자들'이라는 제목의 단원에서 7개 부제 중 하나로 '한국(조선) Korea(Chosen)'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을 주체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본 시각을 주로 역사적으로 기술하였다. 1948년 남한정부수립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다루었는데 이 내용조차 '선거가 남한을 장악한 미국의 감시 속에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였다.

· 'In May, 1948, an election was held under the watchful eyes of American occupying forces in southern Korea.' (Packard·Overton·Wood, 1949, 437)

Packard·Overton·Wood(1949)에서 '일본의 식민지 필요성' 부분에서 '석탄과 철광석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일본이 1910년에 한국을 정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자원에 대한 요구로 한국 이외에 대만, 만주 등을 지배하였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Wheeler, Jr.·Kostbade·Thoman(1955)에서 한국은 독립된 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비독립적이며 왜곡된 부분이 많다. 첫 번째 주제로 다룬 근대 한국의 역사와 경제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역사와 식민경제를 매우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⁶⁾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한 한국경제발전을 강조하였으며 이차 대전 종식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이 철수함으로써 쇠퇴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로 다룬 한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부분에서도 기술 내용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지형과 기후를 일본과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며 산업에 있어서도 발달의 측면에서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발달한 지역으로 서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During their period of control the Japanese developed transportation, agriculture, and industry, the latter from a sizable base of mineral and power resources ... After 1945 the Korean economy was seriously disorganized and handicapped by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Wheeler, Jr.·Kostbade·Thoman, 1955, 504)

· 'Korea is less industrialized than Japan, and ...'
(Wheeler, Jr. · Kostbade · Thoman, 1955, 505)

4. 결론

특정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성격을 기술하는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리학의 학문적 전통이며 지리학을 이끌어어나가는 주요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지역지리학은 지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대학교 지리학과 교과내용 중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로 인식된다. 따라서 대학교의 지리학과에서는 다양한 지역규모의 지역지리학을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세계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지역지리학'도 지역지리학 개론으로서 대부분의 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의 모든 대륙과 그에 속한 국가들의 지역적 특성을 주요 내용으로 '세계지역지리학'의 서술이 이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사용되는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영어를 주 언어로 하여 서구지리학자에 의해 저술되었거나 미국에서 출판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어권 서구 지리학자에 의해 저술된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구 중심적 사고'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크게 반영되어 있으며,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이미 불평등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서구 중심적' 기술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무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지리나 지역의 고유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과거 193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술된 영문판 '세계지역지리학(World Regional Geography)'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구 중심적'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가 가진 문제점을 '한국 관련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의 일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비록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술의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명의 사용이 일제강점기의 경험이나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등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매우 혼돈을 거듭하면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는 점이다.

둘째,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다룬 한국 관련 내용은 '일제에 의한 한국병합',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 발발한 '한국전쟁', 'NICs' 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The Four Tigers)'으로 대변되는 남한의 획기적인 경제발달, 최근 핵문제와 경제파탄으로 인한 기아문제 등이 급부상하면서 세계의 '북한에 대한 관심' 등으로 요약된다.

셋째, '서구 중심적 사고'로 기술된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오류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오류의 주축을 이루는 내용은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한국의 창조적이며 독립적인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경제를 미화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의 종속성을 기술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통합기술의 문제로서 남·북한이 명백히 구분되는 국가적 실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국가적 실체인양 통합하여 기술함으로써 남·북한 각각이 지니는 국가적 고유성을 '세계지역지리학'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훼손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지 않고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함으로써 한국과 관련한 지리적 정보나 기타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국가 간의 상호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며 서구에서 출판된 많은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들은 대학교 지리학과에서만 아니라 지역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전문적이고도 필수적인 자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계지역지리학을 저술하는 학자들에게는 각 국가의 고유

성을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서구중심'이 아닌 '중립적' 관점의 서술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정보의 획득도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진다. '세계지역지리학'을 저술하는 지리학자들에게 특히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요구됨은 당연하며 본 연구결과에 이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註

- 1) 미국에서는 자연지리학(Physical Geography), 세계지역지리학(World Regional Geography), 계통지리학(Systematic Physical-Human Geography), 인문/문화지리학(Human-Cultural Geography)을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지리학의 중요한 4대 개론으로 다루고 있다.
- 2) NICs는 1998년 이후에는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로 개칭되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을 위시하여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포르투갈, 그리스 등과 함께 남한이 포함된다.
- 3) 사실상 한국이 과거 중국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는 건널목 노릇에 시종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편견이 아직 존재한다(심재룡, 1993).
- 4) 일본의 조선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수탈을 위해 입안되었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 5) 그러나 일제시대 식민지 공업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 내 산업연관이 높아져 갔음을 주장하는 견해는 일본 내 학자들에게는 보편적이며 이는 종속성의 심화와 사실상 배치되는 지적이다(정진성, 2000).
- 6) 미국 역사학자 C. J. Eckert는 1960년 이후 남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일제의 식민지 경제에서 찾았다. 한국 자체로의 발전은 불가능하였고 일제가 이식하고 키워준 자본가 계급과 그 유산에 의해 비로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자본주의를 꽃피우고 발전시켰다는 과거 식민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사고이며 일부 미국 지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사고에 영향 받았음이 분명하다(정태현, 2002).

文獻

고석규 · 고영진, 1996, 역사 속의 역사 읽기 3, 풀빛, 서울.
 권태룡, 1991,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련내용 이렇게 잘못 되어 있다." 통일한국, 93, 118-123.
 김선미, 2001, "미국 세계사 교과서 속의 한국사." 사회과교육학연구, 5, 80-105.
 김희목, 1991, "외국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지리 관련

오류내용의 종합적 검토." 지리학연구, 18, 33-54.
 린형구, 2004, "북미 연구자들의 한국역사학 인식." 역사비평, 66, 167-191.
 박철웅, 2001, "지리교과서 내용 체계에 대한 지리교사의 인식과 분류 체계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8(1), 67-81.
 손용택, 1997,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비친 한국." 지리학연구, 31, 1-18.
 손용택 · 박선미, 2002, "한국 사회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미친 미국,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비친 한국." 사회과교육, 41(1), 5-35.
 손용택 · 정영순, 1999,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사회과교육, 32, 427-447.
 송언근 · 김재일, 2002,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인지특성과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전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 364-379.
 심재룡, 1993, "한국문화의 독자성을 논한다." 철학과 현실, 19, 15-27.
 이학원 역, 1998, "고등학교 지리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 한국시민지리학회, 61-67.
 정두희, 1999, 미국에서의 한국사 연구. 한국자료원, 서울.
 정재정, 1996, "일본자본 침투와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3, 347-366.
 정진성, 2000, "철도로 본 식민지 사회경제사." 역사비평, 51, 375-385.
 정태현, 2002, "카터 에커트의 한국 '민족주의' 인식 비판." 역사비평, 59, 156-174.
 최병두, 2002,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31-149.
 Alber, R. F., Adams, J. S. and Gould, P., 2003, Textbooks that moved generatio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515-518.
 Chalmers, L., Keown, P. and Kent, A., 2002, Exploring different 'perspectives' in secondary geography: professional development option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1(4), 313-324.
 Jitendra, A. K., Nolet, V., Xin, Y. P., Gomez, O., Renouf, K., Iskold, L. and DaCosta, J., 2001, An analysis of middle school geography

- textbooks : implications for students with learning problems, *Reading & Writing Quarterly*, 17, 151-173.
- Kinder, D., Bursuck, B. and Epstein, M., 1992, An evaluation of history textbook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5(4), 472-491.
- Lambert, D., 1999, Exploring the use of textbooks in Keys Stage 3 geography classrooms: a small-scale study, *The Curriculum Journal*, 10(1), 85-105.
- Lidstone, J., 1995, Teaching with textbooks in undergraduate geography courses: guilt, gild or gilding the lil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19(3), 335-339.
- Lidstone, J. and Stoltman, J., 2002,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geographical education,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1(4), 309-312.
- Muller, P. O., 1995, The contribution of textbooks to undergraduate geography instruction in the USA,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19(3), 341-343.
- Myers, G. A., 2001, Introductory human geography textbook representations of Africa, *Professional Geographer*, 53, 522-532.
- Rotfeld, H. J., 2000, The textbook effect: conventional wisdom, myth, and error in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64, 122-127.
- Sewall, G. T., 1991, How textbooks are neutered, *Academic Questions*(Summer), 54-59.
- Webb, W. B., 1991, History from our textbooks: Boring, Langfeld, and Weld's introductory texts, *Teaching of Psychology*, 18(1), 33-35.

최초투고일 04. 04. 14

최종접수일 04. 06. 18